기코지 절

저명한 승려 교키(668~749)가 721 년에 건립한 불교 사찰인 기코지 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코지 절은 도다이지 절과의 역사적 연관성과 헤이안 시대(794~1185)에 만들어진 목조 아미타여래상이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코지 절의 연꽃 정원을 감상하거나 손으로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 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중심을 잡기 위해 방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코지 절의 건립자 교키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교를 설파하고 사찰을 세웠으며 공공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교키는 721 년에 이 절을 건립하고 '스가와라데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748 년, 쇼무 천황(701~756)이 이곳으로 교키를 찾아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황은 절의 본존을 한참 바라보다가 불상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쇼무 천황은 그 광경에 감명을 받아 절 이름을 '기쁨의 빛을 발하는 절'이라는 뜻을 지닌 '기코지'로 변경했습니다.

기코지 절의 쇠락과 부활

한 세기 동안 계속된 전국 시대(1467~1568)는 내전과 대규모 분쟁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당시 기코지 절은 화재로 훼손되었고 본당이 소실되었습니다. 1544 년에 본당을 재건했지만, 1570 년대에 또 다른 동란이 일어나면서 절의 남대문을 비롯한 많은 사찰 건축물이 전소되었습니다.

기코지 절은 그 이후 3 세기에 걸쳐 천천히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에 정부의 후원이 중단되면서 거의 파괴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1921 년에 절을 방문했던 시인 아이즈 야이치(1881~1956)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닥뜨렸고, 쓰러져 가는 건물을 보며 느낀 비애를 시구에 담아냈습니다.

1990 년에 본격적으로 기코지 절을 소생시키려는 활동이 시작되었고 야마다 호인(1940 년 출생)이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 황폐한 상태에 다소 위축되기는 했으나 호인은 재활성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전 필사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과

현대의 교키 신봉자들에게서 모은 기부금이 보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로써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연꽃 재배였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심은 연꽃 화분은 이제 250 여 개에 달하며, 기코지 절은 '연꽃의 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코지 절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4 년에 교키를 기리는 불당이 지어졌고, 2021 년에는 절을 지지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한 영묘(납골당)이 세워졌습니다. 매월 2 일마다 사경(写経, 경전을 필사하는 수행) 및 강좌가 열리고 매년 3 월 2 일에는 교키의 죽음을 기리는 제례가 거행됩니다. 1,300 여 년 전에 건립된 기코지 절은 다시금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지금 서 계신 곳은 절의 남쪽 문으로, 계속된 소생 노력의 일환으로 2010 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2m 높이의 문에는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조각가 나카무라 신야(1926 년 출생)가 조각한 두 구의 인왕상(일본 불교 사찰의 정문 양쪽에 배치되는 수호신상)이 있습니다. 남대문의 인왕상은 문을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한다고 전해집니다.